

두 홍수

(잔류이탈)

James W. Knox 지음
김·영·균 옮김

KJ 강제임스
KingJames

두 홍수(간극이론)

제임스 나스 형제의 창세기 주석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하여 소책자로 만든 것입니다.

©2014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지 은 이 | James W. Knox

옮 기 이 | 김영균

펴 낸 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4. 10. 10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표지사진 | 안성식

디자인편집 | 김화영

■ ISBN 978-89-89741-72-5

■ 정가 1,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두 홍수(간극이론)

지구의 연대

지구의 나이에 관한 다섯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도 매우 오래되었으며 하나님은 없다.
2. 지구는 매우 오래되었고 인류도 매우 오래되었으며 먼 과거 언젠가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3. 지구는 매우 젊고 인류도 매우 젊으며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4. 지구는 매우 오래 되었고 인류는 상대적으로 젊다(과학적 주장).
5. 지구는 매우 오래 되었으나 인류는 매우 젊고 이 모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구창조와 인류의 창조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성경은 이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즉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않고 그저 계시다가 갑자기 6000여 년 전에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논리는 지지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요 1:1-5).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골 1:17).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원소들로부터 모든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바(벧후 3:10-12) 이는 자신의 생각 속에 세워두신 계획과 목적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시 139: 16).

창세기 처음 세 구절은 하늘(소문자 heaven)과 땅(소문자 earth) 그리고 빛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세가지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입니다.

하늘	공간
땅	물질
빛	에너지 - 전자기 스펙트럼

보이지 않는 원소들로부터 만들어진 단단한 공간이 하늘(대문자 Heaven)이라고 불리며 마른 땅이 인간과 짐승을 위한 거처로 형성되어 땅 (대문자 Earth)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따라서 하늘(heaven)과 땅(earth)을 하늘(Heaven)과 땅(Earth)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는 정확합니다. 공간, 물질 그리고 에너지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낮(Day), 밤(Night),

저녁, 아침 그리고 첫째 날은 창세기 1:5에 가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와 1:2 사이에 간극(gap)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음 사실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 원 창조는 물로 덮혀 있었음(1:2).
-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혀 있었음(1:2).
-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단단한 공간으로 형성하셨음(1:6).
- 하나님께서는 이 단단한 공간을 일종의 구조물을 만들고자 나누셨음(1:7-9).
- 이 단단한 물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땅(Earth, 창 1:10)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1:14-19) 땅(Earth)의 거주자들도 만드셨음(1:20 이하).

베드로로서신에 나오는 홍수

베드로후서 3:3-13까지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구절들이 노아의 홍수에 관한 것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홍수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에 나오는 비웃는 자들은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 된다”는 거짓 주장을 붙

들고 있다는 이유로 책망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창세기 1:1에 대한 언급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때”(6절, then)와 “지금”(7절, now) 사이 그 어느 순간엔가 만물의 질서에 엄청난 재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5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보다 훨씬 더 큰 그 무엇을 잠기게 한 홍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한때 홍수로 뒤덮혔던 하늘들과 땅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계적 규모로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는 하늘들을 물에 떠내려 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는 홍수는 창세기 7장의 홍수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는 경고는 어떤 세상이 그 첫 번째 홍수 때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땅이 아니고 땅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삼상 2:8). 베드로후서는 그 홍수를 앞으로 있게 될 하늘들과 땅의 멸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전의 홍수가 멸망시켰던 것과 달리 불살라져서 원소가 해체될 것이고 뒤이어 새 하늘과 새 땅이(10-12절)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삼켜버린 베드로후서의 홍수는 다름 아닌 창세기 1:2의 홍수인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물로 멸망했다면(창 1:2), 현 세상은 불로 멸망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간의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

욥기 22장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강한 자(the mighty man)”가 나오는데 “그는 땅을 소유 하였으며” 그곳에 살고 있던 “존귀한 자(the honorable man)”와 대결하였습니다(욥 22:8). 예수님께서서는 그 강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사탄, 마 12:26-29), 그 존귀한 자는 자기 아내와 함께 죽기 위해 자신의 혼을 포기한 그 남자 아담이었습니다(딤후 2:14).

이 강한 자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넘치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욥 22:11). 그는 하늘과 별들과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욥 22:12-14). 이것을 사탄의 반역과 타락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 13:12-14을 비교해 보십시오.

15-16절에는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진 사악한 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창세기 1:5 이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때가 되기도 전이라는 표현은 영어 “out of time”을 번역한 것으로 시간의 경계 밖에서,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역주) 그런데 16절에서 이 끊어짐은 홍수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수는 창세기 7장이 아닌 창세기 1장의 홍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일어났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 시간의 경계 밖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16절과 20절에

서 사용된 “**끊어졌다(cut down)**”는 표현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14:12과 맞아떨어지므로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을 언급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방주에서 걸어 나와 정화된 지구(Earth)에서 다시 채우기(replenish)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욥기 22장의 홍수에서 남은 자들은 불이 소멸시켰습니다(20절).

욥기의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시간 이전의 인종은 그들의 세상을 혼돈의 어둠으로 남겨놓은 홍수에 의해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전에 인류(오늘날 우리와 같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천사들은 “사람(인간)”과 같은 존재로서 언급되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사탄의 타락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사탄의 타락을 독자들에게 묘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바 이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잘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본문은 한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가장 복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죄 없이 살았던 한 피조물의 신원을 밝히고 있

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타락했을 때 한 무리의 천사들을 대동했다는 사실 또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곳에서 분명치 않은 것은 루시퍼의 반역과 타락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대해 창세기 1장의 침묵이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절)

“빛이 있으라.”(첫째 날), 창조는 없고 허락(영어의 ‘let’ 이란 단어를 유의하십시오)만 있음(3절)

궁창의 형성(둘째 날), 창조는 없음(6절)

물들을 모음, 그리고 식물 생명을 나타나게 하심(셋째 날), 창조는 없음(9-12절)

해, 달, 그리고 별들이 창조됨(넷째 날, 14-18절)

바다 생명과 새들이 창조됨(다섯째 날, 20-22절)

육지 생명과 사람이 창조됨(여섯째 날, 24-27절)

이를 바탕으로(창세기 1장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둘 것) 아담 이전 시대에 있었던 타락의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천사장, 정사 및 권능 등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1:3과 그 이후의 구절들은 이들의 창조기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영적 존재들은 창세기 1장의 실제적인 6일 창조 이전

에 창조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

창세기의 홍수 기록에 따르면 하늘의 창들을 통해 깊음의 샘들로부터 물이 쏟아지고, 흘러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창 7:11).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지하에서 솟구친 물과 합쳐져서 땅덩어리를 잠기게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7:11이 말씀하는 큰 깊음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창세기 7:12은 이 두 가지 원천(하늘의 창들, 깊음의 샘들)으로부터 물들이 비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했다고 말씀합니다. 둘째, 창세기 8:3은 홍수가 끝나자 그 물들은 땅(지구)을 떠나 되돌아 갔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3-4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그 홍수의 물들을 취하사 그것들은 단단한 형태로(firm-ament) 만드셨고 그 결과 그것은 아래에 있는 창조세계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시키는 유리바다가 되었습니다(계 4:6, 15:2, 고전 13:12). 이 바다는 지금은 단단한 얼음으로 되어 있으며(욥 38:30) 거울처럼 작용하여

위로는 모든 것이 빛이요 아래로는 모든 것이 어둠이 됩니다
(욥 37:18, 26:7).

이로써 온 창조의 세계를 비추실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날은 보이지 않게 되고(계 21:23), 결국은 해와 별들을 만드셔야만 하신 것입니다(창 1:14-18).

“깊음”, 혹은 “큰 깊이”으로 알려진 이 엄청난 양의 물 텅어리는 하나님의 왕좌 밑에 놓여있습니다(창 1:2, 49:25, 신 33:13). 이에 대해 잠언 8장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놀랍다고 하겠습니다. 깊음의 샘들은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으며 단단하게 되었고(28절), 땅을 뒤덮지 말라는 칙령을 하나님께서 이 깊음에게 내리셨습니다(29절). 이 잠언 8장의 구절들은 창세기 1:2 이외에는 해당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은 시편 104편에서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들을 펼치셨고(2절), 이것들을 자신을 덮고 있던 빛을 가리기 위한 휘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방들은 물들 속에 그 들보들을 얹으셨습니다(6절). 주의 꾸짖으심에 물들의 일부는 산들을 따라 오르고 땅의 골짜기들과 샘들에 이르러 그분께서 물이 흐르는 길로 정하신 곳들을 채웁니다(7-11절). 또한 주님께서서는 이 물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명령하셨습니다(9절).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왕좌 아래에는 물이 있다.

2. 이 물은 단단하므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다.
3. 이 물이 바로 지금 땅 위에 있는 물의 원천이다.
4. 이 물은 한때 땅을 뒤덮었다.
5. 이 물이 노아의 홍수의 원천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땅에 물을 공급하고자 보내진 이 물의 일부는 다시 홍수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금지당했기 때문이다.
6. 따라서 노아의 날에 있었던 홍수는 이 큰 깊음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
7. 따라서 노아의 홍수는 지구를 덮은 두 번째 홍수가 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판석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이 깊음을 통과하여 하늘로 가게 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사 51:10-11).

땅을 다시 채우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replenish, 다시 채우라로 번역 가능함)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땅에 있었으나 이들은 다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과 이사야의 시대에도 장터에 사람들이 가득하였다가 텅 비게 되자 다시스의 배들과 시돈의 상인들이 그 장터를 다시 채우려고 왔었습니다(겔 27:25, 사 23:2).

사실 성경에서 “replenish”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 단어는 한때 꽉 차 있었다가 텅 비어버린 것을 다시 채워 넣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8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replenish”라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모든 곳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뜻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담의 임무가 땅을 다시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둘째로 현대 성서들이 “replenish”를 “fill(채우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체계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는 아담과 노아를 비교해 보면서 많은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날에 있었던 사건과 노아의 날의 홍수를 비교함으로써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 진리를 거부하려면 두 홍수에 대해 편협한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replenish(다시 채우라)”의 분명한 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들에만 동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아 이전에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들을 대체하고자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전에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이곳에 놓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공룡과 매머드 그리고 앵무조개 화석의 두개골 조각 등이 수천 억년 전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노아를 통해 아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의 죄 값을 치루고자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각각 하늘에서, 혹은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움

창세기 1:1과 1:3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모두를 찾아보십시오. 어둠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항상 심판, 혹은 심판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12에서 아브라함은 큰 어두움의 두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악한 파라오를 대적하여 하늘을 향해 손을 뻗자 이집트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출 10:22). 신명기 28:29에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9에서 볼 수 있듯이 어둠은 사망,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삼상 2:9) 욥기 10:21-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곳 즉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어둠의 땅은 어둠 그 자체와 같으며 사망의 그늘진 땅은 어떤 질서도 없고 거기서는 빛이 어둠같으니이다.” 시편 143:3과 잠언 20:20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0, 8:22, 9:2, 29:18, 42:7, 60:2 등에서는 어둠이 대환난의 특징으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언자들은 이 땅에 다가올 끔찍한 심판을 묘사할 때 어둠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8:12)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

리라. 하니라.”(마 22:13)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 하니라.”(마 25:30)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

신약 서신서에서도 어둠은 항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나 사탄의 권능,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관한 마지막 구절은 계시록 16:10-11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현 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창세기 1:2의 어두움이 우주의 첫 번째 질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죄의 결과 혹은 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늘도 빛입니다. 구원은 죄인을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높고 높으신 그분께서 어둠으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가져온 무엇인가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성경기록에는 온 땅이 어둠에 파묻힌 경우가 세 번 나옵니다. 첫째는 사탄의 반역(창 1장)할 때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였고(4복음서), 그리고 셋째

는 심판이 대환난에 임할 때입니다(마 24장, 요엘 2장 등).

마지막 묵상

창세기 1:2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세심히 살펴해보도록 합시다.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은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렘 4:23) 이 구절들을 읽고 창세기 1:2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눈치채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어 있고 형태가 없고 어둠이 있는 모습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장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어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렘 4:24-25)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간 새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홍수가 한번뿐일 경우 창세기 1:20 이전 혹은 이후의 사건일 것이고 만약 홍수가 두 번 있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렘 4:26-27) 여기서 우리는 이 재앙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있었음에 틀림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도시들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땅이 애곡하고 위에 있는 하늘들이 검게 되리라. 내가 그것을 말하였고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렘 4:29) 이 심판은 땅과 그 거주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늘들마저 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심판하실 리가 없습니다. 분명 하늘들에서 그분의 진노를 야기시킨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경 진술의 일부가 거짓이 되고 맙니다. 환난의 끝 무렵, 즉 주님의 재림 때 **“아무 사람도 없다(there was no man)”**는 말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양과 염소 민족들,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야곱의 고난 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없던 때는 단 두 번 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었으므로 도시들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입니다. 이 때는 어떤 인종이 있었으나 멸망 당하고 말았기에 더 이상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서의 구절들이 아담 이전의 인종에 대한 언급이라면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많은 도시, 기념비, 그리고 문명들 중 노아의 아들들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의 놀라운 유적들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와 연관된 구절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서는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아담이 이 곳을 다시 채워야 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면 그는 다산(열매를 많이 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8 말씀과 일치함에 주목할 것.-역주)

합당치 않은 과학과 합당치 않은 성경 해석 사이에는 많은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과학과 건전한 성경의 해석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 부 록 -

위대한 구원 계획의 최초 계시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창 1:2-4)

창세기의 첫 네 절은 나중에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계시 될 위대한 구원계획에 대한 최초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무런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창조에 관해 더욱 많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낼 지도 모르지만 결코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는 배우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제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개개인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시 100편). 그러나 자

궁 안에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비밀로 남겨 두기로 정해놓으셨습니다(시 139:13-16).

2절에서 우리는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오므로 인해 빚어질 비극적 결과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및 욥기에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저 그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어둠 가운데 형체가 있는 텅 비어 있는 모습은 전능하신 분의 작품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아담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때와 장소와 이유에 대해 성경공부 시간에 탐구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라고는 그저 타락의 무서운 결과들 뿐입니다. 궤도에서 벗어난 인생들, 일시적이든 비천한 것이든 그저 어떡하든 만족을 얻고자 울부짖는 공허한 메아리들, 인간의 생각과 종교들과 역사를 뒤덮고 있는 그 (오!) 어두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아담 이래로 인간의 이야기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나선 소경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형체 없는 공허함은 자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둠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곁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공허함도 어두움도 성령께서 극복하지 못할 만큼 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개혁된 어둠도 어두움에 불과합니다. 개선된 공허도 공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멸 안으로 성령님의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찢림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권능으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혼도 아담의 타락의 파멸로부터 구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안으로 빛을 가져 오셨습니다.

죄인의 구원에 있어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골 1:13)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함께 역사하여 죄의 침입으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어서 우리는 분리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처럼,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

령께서는 육신의 욕심들이라는 형체 없는 공허로부터 구원받은
은 혼을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자녀가 그분
께서 빛 가운데 있듯이 빛 안에서 견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십
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구약성경의 정가운데 위치한 구절은 역대기하 2:17이고, 구
약성경의 정가운데 장은 욥기 29장이며,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은 역대기상 1:25입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곡이론)	James W. Knox	32	1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

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4년 9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❶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❷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옮긴이 : 김영균

- * 前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나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
석〉,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엘.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무엘. 킵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둠의 법칙〉 라온누리